2019년 창세기 제2강(광주 7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말씀 : 창세기 1:26~2:3
요절 : 창세기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난 창세기 1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실로 엄청난 스케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지극히 초라하여 초미세먼지와 같이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원숭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여된 목적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절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창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대체로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째 날도 이대로 마감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자신이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대신 다스릴 존재를 만들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단계로 자신을 대신할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크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여섯째날 하나님은 더욱 특별한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획속에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26절a "사람을 만들고"까지를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간창조가 너무나 중요하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비슷한 말로 하나님을 모방하여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엡 4:24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며 도덕적 진실성과 종교적 성결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며, 평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써 하나님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 우리에게 자존감을 갖게 해 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를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 때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하기 전에 애굽에서 평생 노예백성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은 신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인 '라(Ra)'의 아들입니다. 왕들은 신의 형상을 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에게 세뇌 받은 대로 자신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너희는 노예 백성이 아니라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의 아들 딸들이다. 너희가 곧 신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심으로 그들의 존재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몸은 비록 출애굽하여 자유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툭하면 원망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애굽에 있을때가 좋았다.""그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불평을 해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노예백성, 노예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5,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 관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가운데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확 올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현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금 수저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써 그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때론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속에서도 높은 자존감을 갖고 빛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귀합니다.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을 왕따 시키고 쓸모없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한 존재로 봤기 때문에 돼지 이천 마리를 희생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이천 마리 돼지가 희생된 것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볼 때도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였지만 그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남편을 여러 명 두었던 사마리아여인조차 귀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죄악된 영혼, 이기적이고 교만한 양들을 볼 때 그냥 내버려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3)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인간은 원형인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도 없고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을 반영하고 나타내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사본도 아니고 허상도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은 땅위에서 실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원상의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또 항상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반영하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함께 현재의 인간은 아담의 타락이후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악마의 탈을 쓴 인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한 열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둠의 유혹에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싫어하며 이기심의 종노릇하기도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현재 모습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골1:15)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와 사랑과 지혜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본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외모지상주의시대에서 많은 청년들의 첫 번째 목표는 돈 벌어 외모를 관리하는 것, 두 번째 목표는 좋은 차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모를 뜯어고치는 것보다 이기심과 안일과 정욕으로 어그러진 마음을 뜯어내고 고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하도록 죄악의 찌꺼기를 닦아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 세상 풍조대로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복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1)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1:27,28a절 '땅에 충만하라'까지를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018년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0.98%로 세계192위로 거의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박사는 한국을 저 출산으로 인하여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꼽았습니다. 그는 2305년이 되면 마지막 남은 한국 사람이 죽어 자연 소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출생률 1.19를 기준으로 할 때 2750년 소멸할 것으로 예측)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의 허리는 휘어집니다. 자녀들은 저절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먹을 것 주고 풀어놓으면 되지만,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 돌보고 교육하고 그 자녀가 온전한 역할을 하기 까지 부모는 수많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마음고생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 아니라 부담과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고 낳은 자녀를 위해 수고와 아픔을 감당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으로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하고도 복이 되는 사명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인생의 고난이며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고난을 받으면서 비로소 부모가 되고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길을 여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없으면 부모는 보다 자유롭고 고민도 덜하고 부담도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나라에 들어갔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의지로 산아제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힘이 닿는데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섬기지 않으면 삶은 자유롭고 홀가분합니다. 마음의 짐도 수고도 안 해도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에 깊이 동참하여 때로는 형이 되고 때로는 부모가 되고 때로는 목자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모세는 이런 목자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단 12:3)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실린 대전 오메가 교회는 청년 복음화율 3% 시대에 도전해서, 개척한지 6년만에, 충남대 80여명, 한남대 250여명의 학생이 제자로 훈련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메가 교회의 비전은 1000개의 캠퍼스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폭발적인 성장비결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에 충실했더니 그런 결과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캠퍼스 선교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있어서 자극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캠퍼스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목자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정복하고 다스리라

1:28b을 보십시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물입니다. 과거 동양의 세계관은 자연을 연구와 관찰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신앙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고대 세계는 해나 달, 바다 같은 강한 것들을 두려워하여 섬기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면에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서구에서는 자연은 하나님이 피조한 세상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연구하고 관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파괴하기도 하였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겁먹지 말고 도전하고 개척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즈음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미리 정보를 수집하여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성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안 되었다더라'는 정보에 눌려 도전해 보지도 않고 '스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공도, 취업도, 결혼도 스스로 포기하고 적당히 환경에 맞추어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너 혼자서 잘해 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도전하고 정복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포기하고 싶을 때에 인내하고, 두려울 때는 기도하고, 실패했을 때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인간에게 있어 사명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복이며 나의 존재의미이며 가치입니다. 다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굴복당하고 스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봄 학기 우리 학생들이 학과공부에도 도전하며, 취업에도 도전하며, 힘든 인간관계에도 도전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올 한해 우리에게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갈수록 캠퍼스 전도가 어렵고 제자양성이 어렵고 버겁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사명이 있기에 한주를 깨어있을 수 있고, 사명이 있기에 기도하게 되고, 사명이 있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사명이 나를 지켜주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매주 캠퍼스에 올라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후에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30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 뿐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사람은 먹고 살기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고귀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사명인의 삶을 살 때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공급자가 되십니다. 아마 사람에게 일생 따라다니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먹고 사는 염려로 사명을 뒤로하기보다 먼저 사명을 앞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보라, 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감탄의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창조의 일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최고의 감탄을 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들릴 정도로 크게 기뻐하며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뻐서 어깨춤을 추며 온 우주를 미소 짓고 들썩이게 하는 우주적인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은 온 세상이 흠이나 나쁜 것이 없고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세상을 다스릴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의 등장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면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일수록 행복은 더 커집니다. 만일 교수님이 나를 보고 엄지손가락만 올려 줘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겁니다. 사람의 인정도 그러한데, 나를 존재 그자체로 기뻐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전능하시며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17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심히 기뻐한다, 립서비스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을 외모와 그가 가진 소유와 학벌로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 외모, 직장, 타이틀, 가방끈의 길이 등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것으로 늘 내가 ‘갑인가 을인가’, ‘인사인가 앗사인가’, ‘소중한 사람인가, 찌질이인가’ 비교합니다. 사람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자로 인해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해 행복해 하십니다. 나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경험할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의 참된 자아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백성 이스라엘에게 찌질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절대적인 존재의미를 알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인생목적은 나를 심히 기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왕적 존재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일생동안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쉬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멈췄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셔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어 일을 멈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곧 자신의 창조사역을 기념하고 기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과 쉼의 날이며 즐거움과 만족의 날입니다. 이 날은 창조를 축하하고 즐기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요즈음 세상이 얼마나 숨 가쁘게 돌아갑니까? 설령 몸은 쉬어도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파고드는 근심과 염려와 유혹들로 현대인들을 끊임없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현실 문제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고비만 넘기면...’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다가 인생을 다 보내 버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곧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농사는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곧 일이 많고 먹고살기 힘들수록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이 치열하고 고단할수록 현실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분의 지으신 세계를 기념하며 믿음으로 출발해야한다는 겁니다. 마르바 던(Marva Dawn)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현실에 떠밀려서 매주 창조를 기념하지 않으면 현실문제에 떠밀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수고로 쉼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영혼의 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끝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 끝 날에 다시 오심으로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세상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 매 주일마다 영혼의 풍성한 쉼을 얻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